

미이케 탄광 철도

미이케 탄광 철도의 첫 번째 노선은 1878 년에 2.7km 떨어진 오우라 갱도와 오무타가와 강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증기 기관차가 도입된 1891 년 전에는 말이 열차를 끌었습니다. 1905 년에 미이케 항까지 노선이 연장되었고, 이 노선은 탄광과 해안 사이에 있는 구릉 지대를 가로질렀습니다. 1923 년에는 전면 전기화되었습니다. 1964 년부터 1984 년까지 이 철도는 탄광 노동자와 다른 통근객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카와 갱도에 전시된 기관차를 통해 탄광에서 사용했던 열차의 변천사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열차는 1908 년에 제작된 미국산 15 톤급 전기 기관차입니다. 다른 열차로는 1911 년에 제작된 독일산 20 톤급 기관차, 미쓰비시 중공업이 1915 년에 제작했으며 가장 오래된 국산 전기 기관차인 20 톤급 기관차, 도시바가 1936 년에 제작하여 탄광 폐쇄 전까지 사용되었던 45 톤급 기관차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무타 주변에는 오래된 철도의 도상과 벽돌 터널, 철교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은 미야노하라 갱도와 미야우라 갱도, 미이케 항 부근에 있는 구 세관에서 목재 침목과 철제 레일을 볼 수 있습니다.

2015 년, 미이케 탄광 철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